

서비스 불모지 '알뜰폰'이 달라졌다… 결합·프로모션 '활발'

번호이동 알뜰폰 점유율 34.5%
자급제 물량 증가에 이용자 ↑
분실·파손 보험 등 혜택 들어

최근 스마트폰을 직접 구입해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하는 자급제 이용자들이 늘면서 알뜰폰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애플의 첫 5G 스마트폰인 '아이폰 12' 시리즈가 흥행하면서 자급제 물량의 인기가 덩달아 높아진 점도 알뜰폰 인기에 한 몫 했다. 서비스 불모지라고 불리는 알뜰폰에서도 방송이나 인터넷과 결합한 상품이 나오면서 이용자들의 선택지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8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알뜰폰(MVNO) 전체 번호 이동 건수는 14만 7644건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월 평균 번호 이동 건수와 비교해도 약 50% 증가한 수치다. 전체 번호 이동 기준 사업자별 점유율에서도 알뜰폰은 34.5%를 차지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알뜰폰 요금제 이용자가 늘어나는 이



모델들이 '스카이라이프 모바일' 출시를 알리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



모델이 자급제 아이폰 단말 보험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LG헬로비전

유 중 하나는 자급제 물량의 인기 덕분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21' 시리즈 판매량 중 자급제 비중은 약 30%에 달한다. 이는 전작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KT엠모바일에서는 갤럭시S21 출시 이후 자체 주력 요금제 일 평균 가입자가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었다.

자급제란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을 거치지 않고 제조사나 일반 유통 매장을 방문해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다. 5G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에 신

규로 가입·개통하는 것도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된 이후 5G 단말기를 구매하고 비교적 저렴한 알뜰폰 LTE 유심을 선택해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마트,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자급제 스마트폰을 구매하면 특정 신용카드를 쓸 경우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다. 이동통신사 매장을 방문해 복잡한 설명을 듣기보다 여러 단말을 스스로 비교해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

지난 2010년 9월 통신비 부담 경감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알뜰폰은 이

동통신 3사의 중저가 요금제 출시가 늘면서 위기에 봉착했지만, 자급제 바람을 타고 다시 활기를 보이는 모양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 위주로만 있던 결합상품을 알뜰폰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알뜰폰 서비스 '스카이라이프 모바일'을 출시한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과 인터넷, 알뜰폰을 더한 결합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타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특정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결합혜택을 제공하지만, 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의 광역

성을 기반으로 전국민 대상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위성방송과 100M인터넷을 제공하는 홈결합에 완전무제한형 모바일 상품을 결합하면 월 3만63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알뜰폰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족한 CS나 서비스도 개선되고 있다. 늘어나는 젊은 가입자의 특성에 맞춘 요금제도 마련됐다.

LG헬로비전 헬로모바일에서는 유심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급제 아이폰 단말보험'을 출시했다. 아이폰 전 시리즈를 대상으로 분실·파손 시 최대 120만원까지 보상해 단말 교체나 수리비 부담을 덜 수 있다. 2030 데이터 헤비유저를 겨냥해 알뜰폰 업계 최초로 '구글 플레이 기프트 코드 유심'을 출시해 구글플레이 기프트 혜택도 제공한다.

KT엠모바일의 '데이터(데이터+이득) 프로모션'은 가계 통신비 부담 절감을 위해 LTE 요금제 9종에 1년간 최대 월 100GB 데이터를 증정하는 행사다.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이 프로모션은 시행 1개월 만에 1만4000명을 돌파했다.

/김나인 기자 sikkni@metroseoul.co.kr

넓어진 선택폭… 포드코리아, 新 모델 공개

준대형 SUV 익스플로러 라인업
고출력·프리미엄 선호고객 수요 충족
익스플로러보다 큰 '풀사이즈' SUV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이하 포드코리아)가 올해 대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와 픽업트럭 등 다양한 신모델 출시를 통해 국내 수입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포드코리아는 지난해 링컨의 대형 SUV 에비에이터와 콤팩트 SUV 코세어, 그리고 링컨의 첫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에비에이터 PHEV 그랜드 투어링을 출시하며 럭셔리 SUV 시장에 반향을 일으켰다. 올해는 총 6종의 새로운 모델을 국내 시장에 출시하며 소비자의 선택폭 넓히기에 집중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포드코리아의 제품 라인업은 준대형 SUV 익스플로러로 요약할 수 있다. 익스플로러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 외의 차량은 중형 세단 몬데오와 스포츠카 머스탱에 불과해 익스플로러의 실적이 포드코리아 전체 실적으로 직결되는 상황이다.

포드코리아는 올해 인기 모델인 익스플로러의 상위 트림인 '뉴 포드 익스플로러 플래티넘' 출시를 시작으로 라인



뉴 포드 익스플로러 플래티넘.

업을 대폭 강화한다. 뉴 포드 익스플로러 플래티넘은 기존 익스플로러에 다양한 편의 사양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3.0L GTDI V6 엔진으로 최고 출력 370마력을 발휘하며, 마사지 기능이 포함된 1열 시트와 2열 독립 시트가 적용됐다.

익스플로러보다 큰 '풀사이즈' SUV 도 출시된다. 포드코리아는 포드에서 가장 큰 SUV인 뉴 포드 익스페디션을 내년 상반기 선보일 예정이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익스페디션은 모델에 따라 전장이 5330~5640mm에 달한다. 전폭도 2m를 넘는 2123mm이며 전고는 1945mm 이기에 국내 출시되면 가장 큰 SUV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전망이다.

국내 픽업트럭 시장에도 새롭게 진출한다. 포드코리아는 '뉴 포드 레인저 와일드트랙'과 '레인저 랙터'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뉴 포드 레인저 와일드트랙은 포드의 정통 사륜구동 픽업트럭이다. 2.0L 바이터보 디젤 엔진과 10단 자동변속기 조합으로 도심형 픽업트럭인 레인저에 오프로드 주행 특성을 더했다. 차로 유지보조(LKAS), 어댑티브 크루즈컨트롤(ACC), 자동비상브레이크 시스템(AEBS) 등 강력한 첨단운전자 보조시스템(ADAS)을 탑재했다.

링컨코리아도 자사 플래그십 모델이자 풀사이즈 대형 SUV인 뉴 링컨 네비게이터를 출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SK㈜ C&C NH농협銀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SK㈜ C&C가 NH농협은행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NH농협은행은 8월 마이데이터 사업 오픈에 발맞춰 ▲고객 관점의 데이터 축적·활용을 통한 데이터 비즈니스

선도 ▲자산관리·금융비서 서비스 등 정보 중심 금융 수요 대응 ▲오픈금융·초개인화 마케팅 등 혁신적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번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SK㈜ C&C는 마이데이터 시스템·

포털 등 플랫폼을 구축해 은행 영업점 및 금융 앱을 비롯한 모든 고객 채널 현장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별 ▲고객 계정 생성 ▲정보 이동권 위임(철회) ▲접근도록 발급 ▲정보 이동권 대리 행사 ▲서비스 해지 등이 고객 요청 한 번에 언제든 바로 처리 가능도록 지원한다.

/구서윤 기자

LG CNS AWS 클라우드 보안역량 인증 취득

클라우드 보안 CAT 효과성 입증

LG CNS가 보다 강화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구축한다.

LG CNS는 아마존웹서비스(AWS)의 'AWS 클라우드 보안 역량 인증'을 취득했다고 18일 밝혔다. AWS 클라우드 보안 역량 인증의 4개 영역 중 하나인 '보안엔지니어링'이다. 국내에서 보안 엔지니어링 인증을 획득한 사례는 LG CNS가 처음이다.

AWS는 세계적으로 가장 포괄적이 고 넓리 도입된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AWS 클라우드 보안 역량 인증은 AWS의 파트너(APN)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인증 분야 중 하나인 보안 엔지니어링은 고객사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설

계, 구축하는 과정에서 보안성을 확보하는 역량이다.

클라우드에서 보안은 고객의 1순위 고려사항으로 꼽힌다. 비대면 근무 확대로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클라우드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다. 클라우드 보안은 비밀번호 미설정이나 단순한 비밀번호 설정으로 발생하는 보안 허점을 조기 발견, 경고한다. 클라우드에 접속하려는 외부 공격자를 탐색, 차단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LG CNS는 이번 인증으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CAT'의 효과성도 입증했다. CAT는 클라우드 보안 현황을 자동 점검하는 LG CNS 독자 기술이다. CAT는 관리자의 클릭 한 번에 보안 앤지니어링은 고객사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설

캐딜락, 엔트리급 럭셔리 SUV 'XT4' 출시

'영 아메리칸 럭셔리' 포지셔닝 강화

캐딜락 SUV가 엔트리급을 추가하며 라인업을 확대했다.

캐딜락은 18일 XT4를 국내에 공식 출시하고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XT4는 엔트리급 럭셔리 SUV로, '영 아메리칸 럭셔리' 포지셔닝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외관은 캐딜락 아이덴티티를 담은 캐릭터 라인과 스포티한 스타일에 기본을 두고 매력을 배가한다. 어댑티브 등 7개 컬러 포트폴리오는 개성을 적극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다. 전면부 유광 블랙 매쉬 그릴과 전후방 유광 블랙 페시아 인서트, 시그니처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가 서로 조화롭게 첫 인상을

완성하고, 후방 수직 L자형 라이팅 시그니처와 유광블랙 루프레일 및 윈도우 서라운드 몰딩, 20인치 알로이 휠이 X T4 캐리어를 극대화해준다.

실내는 '컷 앤 소운' 전략에 따른 수작업 마감으로 럭셔리 소재 강점을 극대화했다. 카본 파이버 트림과 화이트 앤비언트 라이팅으로 실내 고급감을 배가했다. 특히 2열 1004mm 레그룸과 970mm 헤드룸 등 동급 최고 수준 공간은 엔트리급 단점을 상쇄한다. 적재공간도 637L, 최대 1385L로 세그먼트를 초월한다. 편의사양도 다양하다. 1열 운전석과 조수석 마사지 시트가 장거리 운행시 편안함을 더했으며, 에어 이오나이저와 1열 열선 및 통풍시트, 2열 열선 시트도 기본 탑재됐다. /김재웅 기자 juk@